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6호 [루게 제23343호] 주제100 (2011)년 1월 26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서 21일과 22일에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최근 나라의 식료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마련해주실것이 조선로동당의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최근 황해북도 사리원시의 정방산종합식료품공장을 방문할수 있는 특은한 토대를 마련한데 대하여 기쁨을

금지 못하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공장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을 밝혀주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공장들의 종업원들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또한 새로 건설된 황해북도인민학습당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므로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에게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일이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더 큰 보람을 느끼고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도들에서 시지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인민학습당들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체코주체사상연구 및 구원소조와 베트남체코조선친선협회 인터넷공동홈페이지 《조선-백두산》은 우와 같은 소식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서 11월 20일공장과 농업생산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하시었다.  
만나신문 《뉴 라이트 오브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첨단을 향해 비약하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브라질사회주의청년동맹 인터넷홈페이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상세히 전하였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회 국제연합 인터넷홈페이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된 남포유리병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 사설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자

세계의 장엄한 총공격전 벌여지고있는 지금 어디서나 요구되는 것이 석탄이다. 석탄이 광량 나와야 비로와 섬유도 쏟아지고 전기와 강철도 나오게 된다.  
강철의 전두적호소파라 산악같이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양양된 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대고조전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면 결정적으로 석탄생산을 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오늘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활력이다.  
지금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고조의 승리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의 전두에 서서여 현지지도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계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대고조령도업적을 빛내이며 모든 분야에서 계속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하자면 석탄부문의 총공격적인 기발을 들고 앞장에서 내달려야 한다. 석탄만 많으면 어디서나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결실을 자랑찬 현실로 꽃피울수 있고 세계를 놀래우는 사변들을 더 많이 창조할수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은 선군시대의 로동계급적 혁명적근로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이 제시한 전투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생산물들을 대세차게, 맹렬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인민생활대고조의 밑거름이 되려는 숭고한 자각, 그날계획은 그날로 무조건 수행하려는 결사의 의지, 그 어떤 난관도 맞받아 뚫고나가려는 결연불굴의 전투적기백으로 석탄전진이 들끓어야 한다. 주인다운 립장에서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고 착암기, 압축기, 동력으로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어디서나 생산적양양의 불길기세로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폐기있는 전투조직과 지휘, 혁명적인 일분세에 석탄생산의 성과가 달려있다.

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 누구나 오늘의 총공격전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로 마련하는 성스러운 투쟁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새겨도록 하여야 한다. 탄부들의 투쟁을 벌리고있다. 전체 인민이 석탄생산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주어야 탄부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줄수 있고 나라의 석탄산도 높이 쌓일수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나라의 석탄전진을 지켜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며 결사의 투쟁을 벌리고있다. 전체 인민이 석탄생산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주어야 탄부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줄수 있고 나라의 석탄산도 높이 쌓일수 있다.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상, 중앙기관들에서는 설비, 자재보장을 계획화하고 무조건 철저히 대주기를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일군들은 나라의 석탄생산을 함께 책임진다는 립장, 자신도 탄광의 주인이라는 판점에서 광목과 철관, 배루, 배어링, 쇠바줄을 비롯한 자재보장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에 먼저 공급하고 다른 단위에 공급하는 원칙에서 설비, 자재들을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탄부들을 배세우고 우대하는 기풍을 세우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탄광일을 전진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로동보호조치를 받은 단위들에서는 탄부들에게 한가시 생활할수머리라고 더 차례지도도록 공급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탄광지원을 일관성있게 잘해나가야 한다. 공중사설의 정진으로

## 래양절기념 및 2.16경축준비위원회 결성

여러 나라에서

래양절기념 및 2.16경축 기념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7일 포나르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은 기념의 주체사상연구 조직원과 친선 및 연대성단체의 인사들,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주체사상연구 기념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결성식에서 래양절과 2월의 명절을 뜻깊게 기념 및 경축하는것은 기념인민이 조선혁명과 인류사추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린 김일성주체와 김정일각히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체사상연구 기념준비위원회 위원장 리아드 살루브가, 부위원장들로서 기념 김정일주체연구소 책임자 아브들라이에 콩페와 기념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바누 케이라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1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의 기간에 집회, 토론회, 강연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 \*  
2.16경축 캄보디아준비위원회가 19일 프놈펜에서 결성되었다.

노르웨이 시하모니국왕의 지시에 따라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썸을 왕궁담당 부수상이, 부위원장들로서 케 아스트 캄보디아인민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장 쉐르와트 씨라와 노르웨이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경여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출판도물을 통하여 널리 소개선전하며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모든 전선에서 승리의 북소리 높이며 끊임없는 혁신을

### 나노기술발전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

나노립자의 립도분포분석기가 새로 개발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어떤 최첨단과학기술이라도 우리의것으로 연구도입할수 있다는 신념과 배신을 가지고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국가과학원 물리화학소 연구진이 개발한 분석기는 용액속에 분산되어있는 나노립자시료의 립도분포를 5nm ~ 5μm크기의 범위에서 비접촉적으로 측정분석하는 나노분석설비이다. 분석기는 크게 광학계통과 신호처리부, 컴퓨터해석부분으로 되어있으며 실시간감시기능을 가지고있다.

최첨단과학기술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우리 나라에서 이미 첨단나노측정설비인 주사결핵미경이 개발된데 이어 이번에는 새로운 나노립자의 립도분포분석설비가 개발됨으로써 현대 과학기술발전에서 핵심기술의 하나인 나노기술연구와 제품개발을 더욱 활성화할수 있는 또 하나의 믿음직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과학자들은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경여하는 장군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나노기술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하고도 절실한 이 연구사업에 피어난 열정을 바치었다.  
실장 리성진, 연구사들인 정세영, 고창중, 김원규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연구를 심화시켜

나노립자에서 산란되는 빛세기의 시간적변화특성을 해명하였다. 그리고 일부 나노립자의 특질로 되어있는 나노립자의 립도분포해석프로그램을 우리 식으로 개발함으로써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우리 과학자들은 제작원가도 적으면서 성능이 높은 첨단나노분석설비를 짧은 기간에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앞으로 이 분석기술은 경공업용 비파괴적인 나노기술을 여러 부문에서 분할전략과 고분자대형 등을 원료로 하는 생산공정들에 대한 감시와 품질관리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하는데 광범히 도입될 것이다.  
본사기자 려명희

### 중송투쟁의 불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

중송투쟁의 불길은 높아 일어나는 인민경제의 전반적 생산수요를 원만히 풀어나갈데 대한 총공격적 투쟁의 전두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중송투쟁위원회에서 대고조전진에 나서는 많은 물동을 더 빨리 실어나르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공세를 대세차게 벌려나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가 선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는가 일명크기 못하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 데 크게 달려있습니다.》  
성당위원회에서는 선군의 모든 국, 처들에서 중송투쟁의 불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단단의 전투준비를 튼튼히 갖추며 기초에서 년초부터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게 하였다.  
철도성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펼쳐나갈 등 새해 첫 전투사업으로 승무원들의 열의를 자극 불러일으키면서 중앙위원회에 많은 물동을 수송해주고있다. 새해전투 첫날에만도 승무원들의 열의가 직접 일군들에게 올라 경공업부문과 인

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 필요한 물동들을 제때에 풀어나르도록 수송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짜고들어 그날수송계획을 100%, 2%로 넘쳐 수행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대고조에 펼쳐나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크게 고무 해주었다.  
중요상차역들과 기관차, 화차수리현장에도 당일군들이 달려나가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당원들과 승무원들의 정진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나가고 있었다.  
성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성직속단위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역, 대, 소로 나누어 환송모임과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었다.  
정초에 20여개의 성직속단위 일군들과 승무원들 그리고 철도성 청년동맹위원회를 비롯한 수백명의 근로단체조직일군들과 동맹원들이 평양역과 평양철도 등 새해 첫 전투사업으로 승무원들의 열의를 자극 불러일으키면서 중앙위원회에 많은 물동을 수송해주고있다. 새해전투 첫날에만도 승무원들의 열의가 직접 일군들에게 올라 경공업부문과 인

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 필요한 물동들을 제때에 풀어나르도록 수송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짜고들어 그날수송계획을 100%, 2%로 넘쳐 수행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대고조에 펼쳐나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크게 고무 해주었다.  
중요상차역들과 기관차, 화차수리현장에도 당일군들이 달려나가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당원들과 승무원들의 정진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나가고 있었다.  
성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성직속단위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역, 대, 소로 나누어 환송모임과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었다.  
정초에 20여개의 성직속단위 일군들과 승무원들 그리고 철도성 청년동맹위원회를 비롯한 수백명의 근로단체조직일군들과 동맹원들이 평양역과 평양철도 등 새해 첫 전투사업으로 승무원들의 열의를 자극 불러일으키면서 중앙위원회에 많은 물동을 수송해주고있다. 새해전투 첫날에만도 승무원들의 열의가 직접 일군들에게 올라 경공업부문과 인

각을 안고 해주. 남포철도분국 당위원회에서는 년초에 철길관리위원회사업을 주도성있게 짜고드는데 일군들이 직접 물동을 실어나르도록 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평양철도국 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중송투쟁에 펼쳐나선 승무원들속에 들어가 올해 공중사설의 사상과 정진성을 깊이 해설해주어 혁명적열의를 더욱 불러일으켰다. 또한 중요상차역들에 내려가 배차조직과 운행지휘를 현지에서 전투적으로 진행하게 하여 기관차, 화차들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나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금속공업부문 물동수송과 평양화학발전연합기업소 석탄수송에서 큰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철길철도국 당위원회에서도 당, 행정일군들이 기관차승무원들과 함께 철차를 타고다니면서 운행하는 과정에 있을수 있는 사고요소들을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게 함으로써 기동차, 무산, 선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에 대한 물동수송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게 하고있다.  
철길이자 곧 수송이라는 자

### 강철전선에 더 많은 파철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철강재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하여서는 전국이 강철전진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공사업의 전투적과업을 파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자강도의 일군들과 단원들, 근로자들은 강철전진에 더 많은 파철을 보내주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펼쳐나갔다.  
지난 14일 하루동안에만도 도에서는 수백 t의 파철을 백수십대의 자동차에 실어 강철중산투쟁으로 들끓는 해당 단위에 보내주었다.  
강철전진을 힘껏 지원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도인민보안군,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을 비롯한 많은 도급기관들과 강계시, 철천군 등 여러 시, 군들이 모범을 보였었다.  
도인민보안군의 일군들은 큰 많은 파철을 마련하는것이 곧 조국방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조직정치사업을 전공적으로 벌려 얼마전 70여 t의 파철을 자동차들에 실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기세로 강철전선에 보내주었다.  
도에서는 도급기관들과 시,

군들의 파철수집정형에 대한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면서 모범적인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잘  
특파기자 동세웅  
평안북도에서  
근로자들은 내부에비를 남김없이 탐구동원하여 지난 14일 하루동안에만도 도적으로 많은 파철을 모아 금속공장에 보내준데 이어 이 사업을 계속 나가는데 달려나가고있다.  
도에서는 시, 군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파철수집사업을 군중적으로 벌리게 하면서 자동차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을 동원하여 모아들인 파철을 제 때에 금속공장에 보내주게 하였다.  
지연사업에서는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 일군들이 모범을 보이고있다. 파철이 많아 철강재생산을 늘일수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도급기관의 일군들은 내부에비를 남김없이 탐구동원하면서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많은 파철을 모아 금속공장에 보내주었다.  
시의주시, 정주시, 구성시, 통천군들의 공장,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들에서도 파철수집사업을 군중적으로 벌리게 파철을 금속공장에 보내주게 하였다.  
금 및 산지 특파기자 김기두

때에 금속공장에 보내주게 하였다.  
지연사업에서는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 일군들이 모범을 보이고있다. 파철이 많아 철강재생산을 늘일수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도급기관의 일군들은 내부에비를 남김없이 탐구동원하면서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많은 파철을 모아 금속공장에 보내주었다.  
시의주시, 정주시, 구성시, 통천군들의 공장,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들에서도 파철수집사업을 군중적으로 벌리게 파철을 금속공장에 보내주게 하였다.  
금 및 산지 특파기자 김기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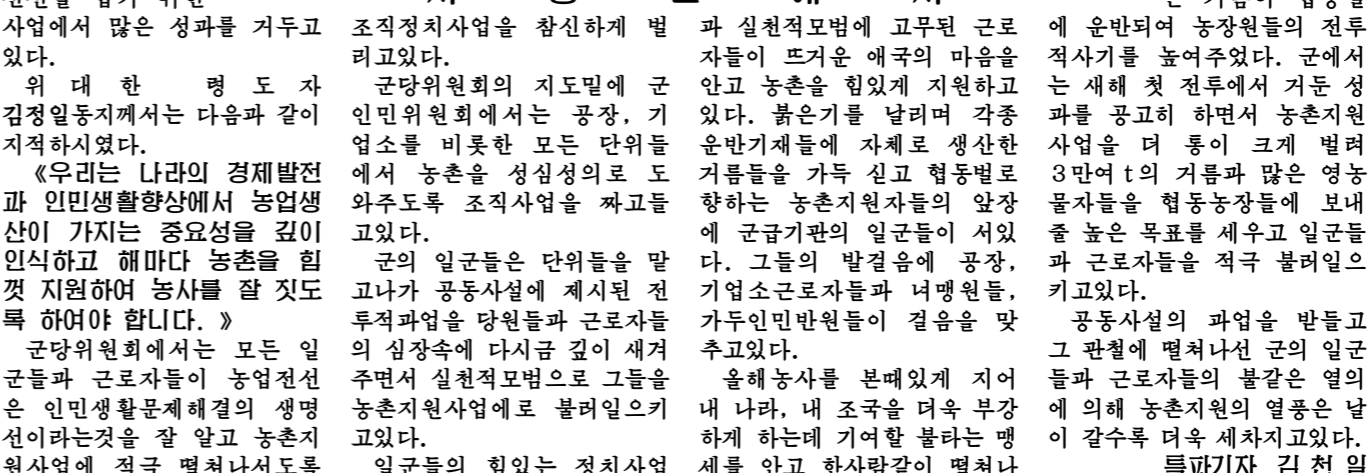
### 힘있게 벌어지는 농촌지원사업

서흥군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인민위원회에서는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모든 단위에서 농촌을 성실성으로 도와주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군의 일군들은 단위들을 맡고나가 공중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다시금 깊이 새겨주면서 실천적모범으로 그들을 농촌지원사업으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일군들의 힘있는 정치사업

파 실천적모범에 고무된 근로자들이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다. 붉은기를 날리며 각종 운반기재들을 자체로 생산한 거름들을 가득 싣고 협동농업향하는 농촌지원자들의 앞장에 군급기관 일군들이 서있다. 그들의 발걸음을 공장, 기업소근로자들과 녀맹원들, 가두인민반원들이 걸음을 맞추고있다.  
올해농사를 본때있게 지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는데 기여할 부라는 맹세를 안고 한사람같이 펼쳐나

에 운반되어 농장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높여주었다. 군에서는 새해 첫 전투에서 거둔 성과를 공히 하면서 농촌지원을 더 용이하게 하며 3만여 t의 거름과 많은 영농물자들을 협동농장들에 보내 줄는 목표를 세우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공공사업의 과업을 받들고 그 관철에 펼쳐나선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불길은 열의에 의해 농촌지원의 열풍은 날이 갈수록 더욱 세차지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벌어지는 거름이 협동농장에 운반되어 농장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높여주었다. 군에서는 새해 첫 전투에서 거둔 성과를 공히 하면서 농촌지원을 더 용이하게 하며 3만여 t의 거름과 많은 영농물자들을 협동농장들에 보내 줄는 목표를 세우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공공사업의 과업을 받들고 그 관철에 펼쳐나선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불길은 열의에 의해 농촌지원의 열풍은 날이 갈수록 더욱 세차지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 아버이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속에 우리가 산다

### 서해에서 표류되었던 곡산군주민들이 받아안은 사랑

얼마전 우리는 서해에서 며칠간 표류하다가 작은 등대섬인 람도에 올랐으나 두려운 얼음에 배끼어 막혀 열나루나 목고있던중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조선인민군 공군 비행기를 타고 물으로 돌아온 곡산군의 주민들을 만났다.

그들의 체형은 우리 인민이 누르가는 삶의 품이 얼마나 끝간대없이 넓고 속속들이 따사로운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생활속에서 구체적으로 살고있으며 우리 당의 은혜로운 손길은 매 당원, 매 근로자들의 발자취마다에 그대로 스며있다.》

지난해 12월 23일이었다. 곡산군현역의 어느 한 부두에서는 자그마한 발동한척이 바다로 나갈 준비를 서두르고있었다. 때는 오후 2시경이었고 일행은 10명이었다.

그들은 별문을 따라 조개밭까지 나갔다가 밀물시간에 맞추어 그날중으로 돌아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바다로 나갈수록 세찬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점점 높아져 목적이에 이르지도 못했는데 밀물때가 되었다.

급기야 배머리를 둘러러는데 기름이 얼어 발동이 걸리지 않았다. 신고할에 기관을 살렸으나 어디서 풀러는 두터운 얼음장들이 배를 에워싸고 있다. 고속을 헤쳐나오려고 하는데 배기판이 완전히 멎어버

리코말았다.

뒀을 드리웠지만 밀려든 얼음장에 바빠져서 지쳐버렸다. 이때부터 배는 초당 13~18m로 부는 서북풍과 강한 파도에 부대끼며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배에는 1kg가량 되는 쌀이 있을뿐 먹을 물도 없었다. 얼음장에 앉은 비계를 끓여먹으며 꿀주림과 갈증을 피우고 바다물에 불온 쌀로 밥을 지어 조금씩 나누어먹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나갔다.

그들은 망망대해에서 조난당하여서도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시는 한편 최후를 각오하여 장군님의 인성을 바라는 편지를 삼가 올리고 바다막다른곳까지 용감하게 투쟁한 인민군영웅전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날 바다와 싸웠다.

기온이 평하 18°C인 맹천 날씨에 바람 한결 가릴수 없는 배에서 변변히 먹지도 못하고 추위와 파도에 시달리는 과정에 여러 사람이 통사를 입어 움직이지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어떤가 하나 살아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오를 물을 퍼내면서 배를 지켜 열심히 버텼었다.

이렇게 표류되던 3박 4일째 되던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경, 그들은 어느 한 배의 선원들에 의하여 구사일생으로 등대섬인 람도에 도착이 되었다.

알고보니 람도는 등대섬들

중에서 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섬이었다.

김남일, 조덕남등 무를 비롯하여 몇명 안되는 섬의 등대원들과 가족들은 생면부지인 그들을 친형처럼 맞이하고 섬의를 다하여 보살펴주었다. 섬생활에서 긴장한 식량과 부식물들을 아끼지 않으며 그들의 건강을 주저서우려고 노력하였다. 비상상으로 긴장하던 약물들도 동상을 입은 사람들도 정성껏 치료하여주었다. 자기들의 생사를 두고 걱정할 가족들에 무전전화로 무사하다는 기별도 해주었다.

곡산군주민들은 뜻하지 않게 온 외진 등대섬의 사람들로 부터 느끼게 되는 진정에 목이 메었다. 한편 경애하는 장군님을 아버지모시고는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바 조국의 품이 얼마나 크고 따뜻한가를 새삼스럽게 절감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였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한갖 욕망에 불과하였다. 알고보니 이곡 등대섬은 주변을 싸며 온 얼음장들로 하여 한겨울동안 배끼어 완전히 막혀있었다.

등대원들의 말에 의하면 빠르면 3월말 대체로는 4월 초순경에야 얼음이 풀려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죽음의 고만에서 살아남는 기쁨과 고마움 같은 것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이 넘쳐있던 곡산군주민들

# 개천시가내축산관리위원회 자작작업반에서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람에게 있어서 보람있는 생활은 사회적집단을 위하여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자작작업반에 다다른 것은 어슬픈이었다. 작업반 마당에 들어서면 우리는 돼지 우리와 있는 곳에서 두런두런 둘러오는 이런 말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언제 낳으려나? 이번엔 몇마리 낳겠는지...》

인상이 꽤 지난후 한 사람이 새끼번 돼지를 어루살고 있었다. 알고보니 그가 바로 작업반장 정재국동무였다.

우리는 그와 함께 돼지우리를 먼저 돌아보았다.

칸안이 둘러막힌 우리마당에는 돼지들이 옥슬거리고있었다. 정재국동무는 어미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가 되어서 가까부터 지켜보던 참이라며 흐뭇한 얼굴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 작업반이 처음 조직될 때는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였다. 그때 작업반에는 변변한 건물도 없었다. 반원들이 집에서 들고나온 새끼돼지 5마리만 전부였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를 먹이시려고 그리고 마음스신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할 결의를 다지고 축산생산시기를 잘 꾸리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였다.”

대부분 가정부인들로 이루어진 작업반에서 돼지우리를 자제 보란듯이 꾸린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도열옥, 정명철, 정현순동무들 비롯한 작업반원들은 끝내 여러칸의 돼지우리를 빈틈하게 건설해놓

# 자랑말입니다

았다. 실정에 맞게 먹이생산까지도 마련하고 매주 기술학습을 꾸준히 하여 관리공들의 사양관리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아를타를 예쁜 보람이 컸다. 지난 10여년동안 작업반에서는 많은 양의 새끼돼지들이 수식미덕의 의미태지를 키워 인민군인들과 관방들에 보내주었다. 그리하여 자작작업반은 축산도 잘하고 원호사업도 잘하는 단위로 다른 지방에까지 소문이 나게 되었다. ...

작업반의 얼굴에선 좋은 웃음이 질출 몰랐다. 자기들의 손으로 일떠세운 일터에 자랑거리가 늘어나니 어찌 기쁘지 않겠나. 이제는 작업반원들이 수식미덕이 아니라 국수를 비롯한 갖가지 식료공품들도 많이 생산하여 주변지역 인민들의 생활에 이바지하고 있다.

《여기 자작작업반이 소문이 났소. 그래서 아들네 집에 나들이왔던 길을 한번 맛보려고 자작작업반을 한집 지고 갔다.》

국수를 차곡차곡 얻은 가방을 뺀 로인이 작업반을 나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저녁때였지만 작업반원들은 일터에서 풀뚫을 안하였다. 군례를 현호하고 관방을 지원하며 인민들의 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애쓰는 그들의 미더운 모습이 우리의 눈에 뜨겁게 미쳐왔다.

자그마한 작업반이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되는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후더워왔고 그래서 작업반을 쉬이 떠나고 싶지 않았다.

오 은 별

# 국가학위학직수여식 진행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령을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기하기 위한 대고조의 총진군길에서 커다란 과학기술적 성과를 이룩한 학자들께 국가학위학직이 수여되었다.

수여식이 25일에 진행되었다.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결성이 전담된 다음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박흥구, 김일성종합대학 경양외국어강좌장 강정석, 김해공업종합대학 교원 김창원, 국가과학원 연구사 김춘중, 사외과학원 연구사

사 계춘길, 부원 조영애, 교육위원회 교육정보센터 연구사 리일용, 영평군당학교 교원 채성희, 동맹대학 박사의 학위가 수여되었다.

전 함흥공업대학 과학위해 옥에게 수여하는 박사학위증서와 메달이 유가주에게 전달되었다.

이어 결의론을 읽었다. 수여식에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대고조불길에 어려있는 아름다운 모습

승림시녀맹원들은 너맹원들이 오히려 인타카와처럼 그의 손을 잡았다.

《일 생각나니... 우리 야장군님께서 아시는 황철의 녀성들이 아닙니까.》

아직도 두손에 지난해전투때 생긴 장일이 풀리지 않았고 손가락을 처럼 볼데도 풀지 못한 상태였지만 자기를 바라보며 대담을 기다리는 불같은 눈동자를 보는 김명옥동무의 가슴은 후회였다.

그날 밤부터 증산의 불노를 이 피어오르는 강철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또 하나의 불의 바다가 생겨났다. 너맹원들이 지켜올린 수백개의 모닥불과 불망등이었다.

강추위속에서 인명을 뜰어나나 그들은 내화복을 하나하나 수습해나갔다. 낮과 밤이 바뀌어 갔다.

세해 첫 전투가 벌어지는 강철직장에 들렀던 시녀맹원 김명옥동무는 련합기업소가 올 해전투를 힘있게 벌리는데서 내화복을 확보하고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그 일을 맡아왔다.)

그날 너맹원들과 무릎을 마주한 그는 자기의 심정을 머릿속에 다마음 한구석에서 미안한것이 매달려 돌아갔다. 지난해에 담뚝을 피우고 다 많은 옷을 뿜었다고 집안에서 퍼져서 성을 다하고 밖에 나와서는 손바닥이 부르드도록 수많은 일감을 찾아부리고 아직 피로도 가지지 못한 너맹원들이 아닌가.

그의 눈빛이 속마음을 읽게 되었는데 벌써 지금까지 수백명을 치료해준으로써 전력생산을 위해 떨쳐나선 로동계급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지난 1월 중순 전기직장에 야간이동치료를 나간 현장치료대 성원들은 생산지휘를 하던 부직장장 백경민동무가 아픔을 호소하는것을 듣고 혈양사수를 한 다음 긴급급진치료를 조직하고 밤늦게까지 혈양을 정상상태로 호전시키기 위한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여 그가 야간 전력생산지휘를 성과적으로 보잘할수 있게 하였다.

열생산직장의 오랜 기능공인 최명오동무와 현대화실장 리경철동무도 이들의 성의를 위해 치료를 받고 병을 완치한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종업원들이 현장치료대 성원들이 바쳐가는 지극한 정성과 더불어 건강을 회복하고 전력생산의 불길을 새치게 지켜가고있다.

이곳 진료소의 의료원들과 함께 전력생산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김만유병원 현장치료대 성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영양화력발전소의 일꾼들과 전체 전력생산자들은 사회주의보건제의 고마움을 가슴부듯이 느끼고있으며 전력생산으로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보람의 한마음을 불태우고있다.

백성근

# 조중친선 설명절련환모임 개막

【평양 1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중친선 설명절련환모임이 개막되었다.

개막식이 25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있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에 진행하신 역사적인 중국방문을 수록한 사진문헌들과 중국을 방문한 피다바가극단의 가극 《홍루몽》 공연, 중국을 소개하는 사진들, 중국인민수용에 물들이 개막식장에 전시되어있다.

개막식에는 전영진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조중친선 협회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전춘식 인민봉사총국 부총장, 친선협회성원들, 관계부문 일꾼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류홍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대사와 대사관성원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중국 손님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전영진부위원장과 류홍재특명전대사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2010년은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이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며 커다란 성과를 거둔 뜻깊은 해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에 두차례나 중국을 방문하시어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친선에 관한 조약체결

50분이 되는 올해에도 로세대혁명가들께서 마련하고 이루어진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김원평명칭 평양음악대학 교원, 학생들과 중국 단둥시가무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조중 두 나라 민족음악동공연을 관람하였다.

불멸의 혁명승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로 시작한 공연무대에는 너맹동창 《모란봉》, 가야금동주 《옹헤야》, 중국노래들인 남정동창 《기러기》, 기악합주 《달리보》를 비롯한 종목들이 올랐다.

공연은 합창 《조중친선은 영원히라리》로 끝났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기네수상을 의례방문

【평양 1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리경선 기네수제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19일 모하메드 사이드 포라나 기네공화국 수상에 의례방문하였다.

식상에서 수상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 김만유병원의 의료원들이 전력생산의 동운을 올리는 동영양화력발전소에 나가 현장치료전투를 힘있게 벌이고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의료방기관들에서는 외래환자를 치료하는 기술력량을 강화하고 외래환자에 대한 치료사업을 잘하며 왕진과 현장치료, 김진과 만성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의료봉사활동을 널리 벌여야 하겠다.》

김만유병원의 책임일꾼들은 새해백두부터 동영양화력발전소 로동계급의 건강을 위해 여러차례 현지에 나와 실례를 로해한데 기초하여 초음파기기와 심전도기구를 비롯한 의료기구를 로동현장에 전개하도록 하고 유능한 의사, 간호원들로 집중진료과 집중치료를 조직해주었다.

뿐만아니라 김명철, 홍춘식, 유태남, 김형희동무들로 현장치료대를 조직하고 전력생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영양화력발전소의 일꾼들과 전체 전력생산자들은 사회주의보건제의 고마움을 가슴부듯이 느끼고있으며 전력생산으로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보람의 한마음을 불태우고있다.

백성근

# 희천으로 달리는 마음

철산군 읍에서 사는 최경철 동무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우리 당의 강성대국건설을 앞장서서 총격하게 받들어 나가는 최희천발전소 건설자들에게 보낼 지원물자를 성의껏 마련해가는 기쁨이 넘쳐나고 있다.

이 가정의 밝은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지난해 -30°C를 오르내리는 혹한속에서 최희천발전소 건설장을 찾아주고 하루빨리 공사를 완공할수 있는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소식에 접한 그대로 우리 최희천에의 결정을 변함없이 이어가는 애국의 가정이다.

지난 기간 백두산자극 혁명전진지, 혁명사적지건설에 아낌없이 바치는 뜨거운 지성을 새로운 천리마속도, 최희천도 창조자들을 위해 더욱 고결하게 꽃피워가고있는 이들이다.

그날 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안은 한 젊은 행복이 열화같은 애국의 마음을 더욱 분출시키고있다.

그렇다. 최경철동무의 가정과 같은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이 바치는 숭고한 애국의 마음들도 뜨겁게 스며들어



지원물자

#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로 로동자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여주고있다. 부원들인 김은성, 김상운, 조현남동무들은 로동자들을 위한 후방사업을 성의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산의욕을 북돋아주고있다.

지금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올해에 더 많은 과파서, 참고서, 화용물등을 생산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로동통신원 최윤숙







# 자주통일과 평화실현은 조선인민의 확고한 의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지지하여 여러 나라 정당, 단체, 인사들이 성명과 담화를 발표하였다.

나이지리아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는 10일 성명에서 조선의 주요인물들이 공동사업에서 올해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킬것을 호소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의 선군명도기에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한다.

우리는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며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6.15 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며 민족공동의 이익을 첫지대로 놓고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2011년이 조선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는 해로 되리라고 확신한다.

마르크스주의로동당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만이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리한 방도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조선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세력의 악랄한 공격의 대상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우리는 유럽지역 공산당, 로동당의 전체 당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적극 지지할것을 호소한다.

말라공산당은 18일 성명에서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들이 연합성명을 통하여 친명한 남조선당국을 포함하는 정당, 단체들과의 대화와 협상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이 제거되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은 최약의 상태에 이른 북남관계를 개선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도이다.

우리는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의 제안을 옹호나 실질을 남조선당국에 요구한다.

오스트리아로동련 좌익블럭 편방자도부는 17일 유럽지역 로조조직들과 세계적업권맹신자 로조단체들에 보낸 호소문에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방도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을 적극 지지할것을 호소하였다.

소소문은 대화와 협상만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항구적평화를 보장할수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은 조선의 이 중대제안을 즉시 받아들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주제사상연구사 리사장비슈와나스는 6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당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조선반도와 북남사이에서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관련하여 연합회의를 조성하고 현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대문제들을 토의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이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들에 대화와 협상을 제기한것은 조선반도의 현실강장태를 해소하고 조선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기 위한 획기적이고도 중대한 조치이다.

무장충돌과 전쟁으로 번져갈수 있는 대결로는 현 북남관계를 결코 해결할수 없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조선반도에 평화와 통일, 번영과 진보를 가져올수 있는 길을 모색할수 있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에 적극 호응해나서야 하며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전세계 주제사상신봉자들의 이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에 전적인 지지를 표한다.

벨지끄로동당 중앙위원회는 1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보내온 편대성명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난해 조선반도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들은 미제 강정을 계속 긴장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는 동북아시아에서 저들의 군사적지배를 강화하려 하고있다.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제

의 책동을 분쇄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벨지끄로동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환영한다.

우리는 연합성명에 밝힌 중대제안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이 제안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촉진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의 장을 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조선반도는 미제의 간섭과 위협이 없어질 때에만 통일될수 있다.

그것은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수하며 북남사이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정전상태를 끝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이 중요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브라질공산당은 15일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침체에 긴장상태는 국제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근본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모든 인민들은 폭탄을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조선의 중대제안이 실현되기를 바라고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세계의 모든 나라 정부, 정당, 단체들과 국제기구들, 진보적인민들이 조선의 정당한 제안에 지지를 보낼것을 호소한다.

주제사상연구사조 한자이나 전국조정위원회와 한자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회의는 12일 공동성명에서 북남사이의 폭탄을 대화와 협상

한해 또 한해 ...

땃 쌓여지는 년 불 속에 김일성조선의 승리의 력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오늘 우리 민족은 물론 만민의 심장속에 뜨겁게 차오르는 것은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대한 절절한 그 리움과 열화같은 호모심이다.

어버리수령님에 대한 세계 수억만인민들의 다함없는 호모와 그 리움의 숭고한 사상감정은 주체의 최고 정치금수산기념공전을 방탄한 외국

의 벗들이 남긴 방문록에도 력 력히 어려웠다.

방문록에는 외국이 남긴 다수과 같은 글들이 있다.

《모택동주석과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중조 주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단애에 길이 빛날것이다.

김일성동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중국인민의 위대한 벗이시라.

## 방문록에 비친 세계

우리는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그리워할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정신은 영원 불멸할것이다.》(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제20단장)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혁명력사는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귀감으로 된다.

주제사상을 창시하신것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린 그이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주제사상연구사연구소 사무국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분대이다. 우리들은 그의 사상을 받들어나갈것이다.

그이께서는 영생하시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만세!》(김자비공화국 정부대포단 단장)

세계 여러 나라 고위급인사들이 금수산기념공전을 방문하고 방문록에 남긴 글들마다에서도 어버리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호모와 그리움이 대박치고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은가보동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신 김일성주석을 절절히 그리웁니다.》라는 글들 방문록에 남겼다.

## 벨스까조선협회 년차총회 진행

우리는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그리워할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정신은 영원 불멸할것이다.》(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제20단장)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혁명력사는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귀감으로 된다.

주제사상을 창시하신것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린 그이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주제사상연구사연구소 사무국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분대이다. 우리들은 그의 사상을 받들어나갈것이다.

그이께서는 영생하시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만세!》(김자비공화국 정부대포단 단장)

세계 여러 나라 고위급인사들이 금수산기념공전을 방문하고 방문록에 남긴 글들마다에서도 어버리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호모와 그리움이 대박치고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은가보동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신 김일성주석을 절절히 그리웁니다.》라는 글들 방문록에 남겼다.

## 자주적삶을 위한 길에서

우리는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그리워할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정신은 영원 불멸할것이다.》(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제20단장)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혁명력사는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귀감으로 된다.

주제사상을 창시하신것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린 그이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주제사상연구사연구소 사무국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분대이다. 우리들은 그의 사상을 받들어나갈것이다.

그이께서는 영생하시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만세!》(김자비공화국 정부대포단 단장)

세계 여러 나라 고위급인사들이 금수산기념공전을 방문하고 방문록에 남긴 글들마다에서도 어버리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호모와 그리움이 대박치고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은가보동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신 김일성주석을 절절히 그리웁니다.》라는 글들 방문록에 남겼다.

## 심각한 식량위기를, 커가는 우려

우리는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그리워할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정신은 영원 불멸할것이다.》(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제20단장)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혁명력사는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귀감으로 된다.

주제사상을 창시하신것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린 그이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주제사상연구사연구소 사무국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분대이다. 우리들은 그의 사상을 받들어나갈것이다.

그이께서는 영생하시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만세!》(김자비공화국 정부대포단 단장)

세계 여러 나라 고위급인사들이 금수산기념공전을 방문하고 방문록에 남긴 글들마다에서도 어버리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호모와 그리움이 대박치고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은가보동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신 김일성주석을 절절히 그리웁니다.》라는 글들 방문록에 남겼다.

## 미국의 강권과 전횡, 내정간섭에 대한 규탄배격

우리는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그리워할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정신은 영원 불멸할것이다.》(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제20단장)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혁명력사는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귀감으로 된다.

주제사상을 창시하신것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린 그이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주제사상연구사연구소 사무국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분대이다. 우리들은 그의 사상을 받들어나갈것이다.

그이께서는 영생하시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만세!》(김자비공화국 정부대포단 단장)

세계 여러 나라 고위급인사들이 금수산기념공전을 방문하고 방문록에 남긴 글들마다에서도 어버리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호모와 그리움이 대박치고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은가보동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신 김일성주석을 절절히 그리웁니다.》라는 글들 방문록에 남겼다.

## 편지위원회

우리는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그리워할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정신은 영원 불멸할것이다.》(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제20단장)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혁명력사는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귀감으로 된다.

주제사상을 창시하신것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린 그이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주제사상연구사연구소 사무국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분대이다. 우리들은 그의 사상을 받들어나갈것이다.

그이께서는 영생하시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만세!》(김자비공화국 정부대포단 단장)

세계 여러 나라 고위급인사들이 금수산기념공전을 방문하고 방문록에 남긴 글들마다에서도 어버리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호모와 그리움이 대박치고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은가보동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신 김일성주석을 절절히 그리웁니다.》라는 글들 방문록에 남겼다.

## 꾸바혁명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꾸바혁명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동지가 최근에 발표한 글에서 혁명승리와 사회주의수호를 위한 꾸바인민의 투쟁성파에 대해 언급하였다.

글은 꾸바혁명이 그 누구의 지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꾸바 인민지체의 힘으로 승리한 혁명이라고 지적하고 꾸바혁명의 사회주의성격을 선포한 후 인민들은 사회주의제도를 지켜 싸웠으며 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패배를 안기었다고 밝혔다.

## 이스라엘군의 군사적공격만행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군사적공격만행을 매일과 같이 간행하고있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18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의 동북부지역에 마구 포사격을 가하여 무고한 팔레스타인인 1명을 살해하고 2명에 부상을 입혔다.

## 아프가니스탄에서 북아나는 나토군

아프가니스탄주둔 나토군이 항쟁세력의 편이온 군사적공격으로 계속 북아나고있다.

19일과 20일 북부와 남부지역에서 항쟁세력의 공격을 받아 2명의 나토군병사가 또

## 결치레 《조사》 놀음

3명을 사살하고 다른 3명에게는 부상을 입혔다. 그런데 이 《진과》의 희생자는 《테로분자》들이 아니라 제편인 아프가니스탄경찰들이었다. 이런것을 두고 소경 제 닭 잡아먹는 격이라고 말한다. 이 얼마나 가관인가!

## 미국의 강권과 전횡, 내정간섭에 대한 규탄배격

오늘 일제세계를 노린 미국의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있으며 그것은 세계의 안전과 질서를 파괴하고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패권적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협 전만한 미식량방위체제수립책을 강행하는 한편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있다. 지어 미국은 저들의 동맹국과 하는 유럽동맹과 나토성원국들에게 지 지엄을 꾸러놓고 파괴활동을 벌이고있다.

미국의 사고관점은 유럽동맹성원국들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림장과 행동에서 저들의 일국 세계수립에 방해되는 존재들이기때문에 최대한 약화시켜야 한다는것이다. 이로부터 국제무대에서 패권적지위를 차지하고 지배권을 확장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보다 로골적이며 폭력적성격을 띠고있다. 이러한 행위는 세계의 안전을 심히 파괴하고있으며 이로 하여 국제사회의 응당한 항의를 초월

## 자주통일과 평화실현은 조선인민의 확고한 의지

우리는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그리워할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정신은 영원 불멸할것이다.》(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제20단장)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혁명력사는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귀감으로 된다.

주제사상을 창시하신것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린 그이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주제사상연구사연구소 사무국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분대이다. 우리들은 그의 사상을 받들어나갈것이다.

그이께서는 영생하시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만세!》(김자비공화국 정부대포단 단장)

세계 여러 나라 고위급인사들이 금수산기념공전을 방문하고 방문록에 남긴 글들마다에서도 어버리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호모와 그리움이 대박치고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은가보동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신 김일성주석을 절절히 그리웁니다.》라는 글들 방문록에 남겼다.

## 심각한 식량위기를, 커가는 우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시기후천상으로 인한 극심한 자연재해로 진통을 겪고있다.

이미 보도편바와 같이 지난해에 세계적으로 볼 때 아이티와 칠레에서의 대지진, 칠레 남부 빙하밀에서 화산분출 등 여러 특대형자연재해들은 막대한 인적 및 물질손실을 가져다주었다.

식량가격이 오르는데 따라 식물가격도 상승하고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세계식량가격의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식물가격지수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해 10월에 세계식물가격지수가 197.1점을 기록해 전년보다 5% 올랐다.

지난 5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월별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12월에는 세계식물가격지수가 214.7점을 기록하였다.

지난해 세계식물생산량은 그 전보다 2% 감소되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의 경제전문가는 《2010년에 식물가격이 폭등한 리유는 하나나 큰 물과 전례없는 무더위 등 복잡한 자연기후조건과 관련된다. 이러한 자연기후조건은 수확과

## 편지위원회

우리는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그리워할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정신은 영원 불멸할것이다.》(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제20단장)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혁명력사는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귀감으로 된다.

주제사상을 창시하신것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린 그이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주제사상연구사연구소 사무국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분대이다. 우리들은 그의 사상을 받들어나갈것이다.

그이께서는 영생하시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만세!》(김자비공화국 정부대포단 단장)

세계 여러 나라 고위급인사들이 금수산기념공전을 방문하고 방문록에 남긴 글들마다에서도 어버리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호모와 그리움이 대박치고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은가보동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신 김일성주석을 절절히 그리웁니다.》라는 글들 방문록에 남겼다.

## 로씨야에서 레로사건 발생

로씨야의 모스크바에 있는 도모세도모크비행장에서 24일 폭발물테러사건이 발생하였다.

로씨야연방 보건사회발전성은 이날 오후 비행장의 접두부는 이송이 일어난 후발로 31명이 사망하고 약 130명이

## 아프가니스탄에서 북아나는 나토군

아프가니스탄주둔 나토군이 항쟁세력의 편이온 군사적공격으로 계속 북아나고있다.

19일과 20일 북부와 남부지역에서 항쟁세력의 공격을 받아 2명의 나토군병사가 또

## 결치레 《조사》 놀음

3명을 사살하고 다른 3명에게는 부상을 입혔다. 그런데 이 《진과》의 희생자는 《테로분자》들이 아니라 제편인 아프가니스탄경찰들이었다. 이런것을 두고 소경 제 닭 잡아먹는 격이라고 말한다. 이 얼마나 가관인가!

## 미국의 강권과 전횡, 내정간섭에 대한 규탄배격

오늘 일제세계를 노린 미국의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있으며 그것은 세계의 안전과 질서를 파괴하고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패권적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협 전만한 미식량방위체제수립책을 강행하는 한편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있다. 지어 미국은 저들의 동맹국과 하는 유럽동맹과 나토성원국들에게 지 지엄을 꾸러놓고 파괴활동을 벌이고있다.

미국의 사고관점은 유럽동맹성원국들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림장과 행동에서 저들의 일국 세계수립에 방해되는 존재들이기때문에 최대한 약화시켜야 한다는것이다. 이로부터 국제무대에서 패권적지위를 차지하고 지배권을 확장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보다 로골적이며 폭력적성격을 띠고있다. 이러한 행위는 세계의 안전을 심히 파괴하고있으며 이로 하여 국제사회의 응당한 항의를 초월

## 자주통일과 평화실현은 조선인민의 확고한 의지

우리는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그리워할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정신은 영원 불멸할것이다.》(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제20단장)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혁명력사는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귀감으로 된다.

주제사상을 창시하신것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린 그이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주제사상연구사연구소 사무국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분대이다. 우리들은 그의 사상을 받들어나갈것이다.

그이께서는 영생하시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만세!》(김자비공화국 정부대포단 단장)

세계 여러 나라 고위급인사들이 금수산기념공전을 방문하고 방문록에 남긴 글들마다에서도 어버리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호모와 그리움이 대박치고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은가보동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신 김일성주석을 절절히 그리웁니다.》라는 글들 방문록에 남겼다.

## 심각한 식량위기를, 커가는 우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시기후천상으로 인한 극심한 자연재해로 진통을 겪고있다.

이미 보도편바와 같이 지난해에 세계적으로 볼 때 아이티와 칠레에서의 대지진, 칠레 남부 빙하밀에서 화산분출 등 여러 특대형자연재해들은 막대한 인적 및 물질손실을 가져다주었다.

식량가격이 오르는데 따라 식물가격도 상승하고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세계식량가격의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식물가격지수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해 10월에 세계식물가격지수가 197.1점을 기록해 전년보다 5% 올랐다.

지난 5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월별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12월에는 세계식물가격지수가 214.7점을 기록하였다.

지난해 세계식물생산량은 그 전보다 2% 감소되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의 경제전문가는 《2010년에 식물가격이 폭등한 리유는 하나나 큰 물과 전례없는 무더위 등 복잡한 자연기후조건과 관련된다. 이러한 자연기후조건은 수확과

## 편지위원회

우리는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그리워할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정신은 영원 불멸할것이다.》(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제20단장)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혁명력사는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귀감으로 된다.

주제사상을 창시하신것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린 그이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주제사상연구사연구소 사무국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분대이다. 우리들은 그의 사상을 받들어나갈것이다.

그이께서는 영생하시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만세!》(김자비공화국 정부대포단 단장)

세계 여러 나라 고위급인사들이 금수산기념공전을 방문하고 방문록에 남긴 글들마다에서도 어버리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호모와 그리움이 대박치고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은가보동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신 김일성주석을 절절히 그리웁니다.》라는 글들 방문록에 남겼다.

## 심각한 식량위기를, 커가는 우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시기후천상으로 인한 극심한 자연재해로 진통을 겪고있다.

이미 보도편바와 같이 지난해에 세계적으로 볼 때 아이티와 칠레에서의 대지진, 칠레 남부 빙하밀에서 화산분출 등 여러 특대형자연재해들은 막대한 인적 및 물질손실을 가져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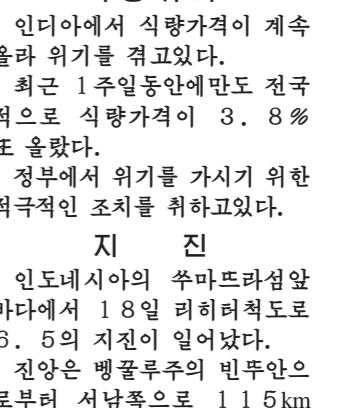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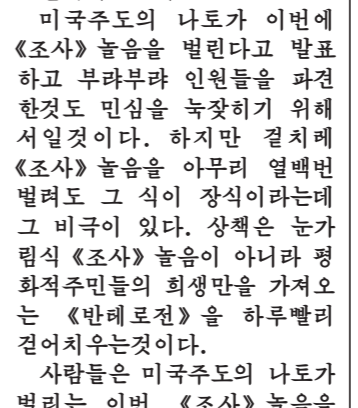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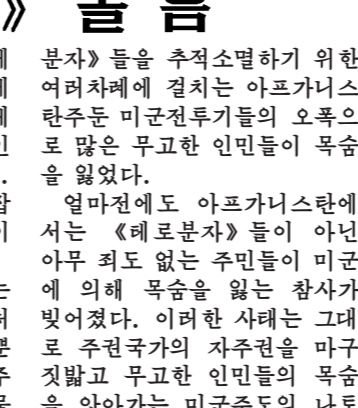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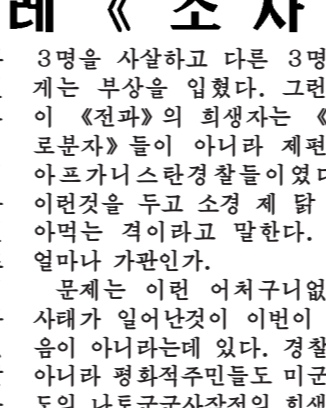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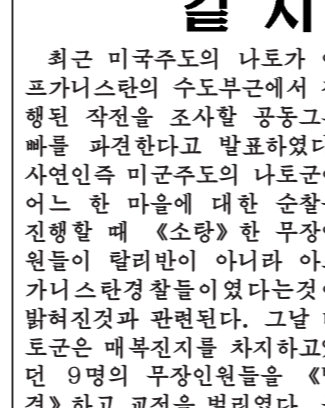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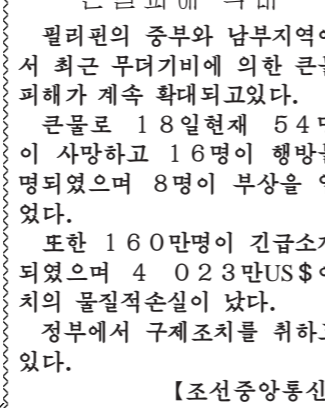
식량가격이 오르는데 따라 식물가격도 상승하고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세계식량가격의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식물가격지수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해 10월에 세계식물가격지수가 197.1점을 기록해 전년보다 5% 올랐다.

지난 5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월별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12월에는 세계식물가격지수가 214.7점을 기록하였다.

지난해 세계식물생산량은 그 전보다 2% 감소되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의 경제전문가는 《2010년에 식물가격이 폭등한 리유는 하나나 큰 물과 전례없는 무더위 등 복잡한 자연기후조건과 관련된다. 이러한 자연기후조건은 수확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시기후천상으로 인한 극심한 자연재해로 진통을 겪고있다.

이미 보도편바와 같이 지난해에 세계적으로 볼 때 아이티와 칠레에서의 대지진, 칠레 남부 빙하밀에서 화산분출 등 여러 특대형자연재해들은 막대한 인적 및 물질손실을 가져다주었다.

식량가격이 오르는데 따라 식물가격도 상승하고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세계식량가격의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식물가격지수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해 10월에 세계식물가격지수가 197.1점을 기록해 전년보다 5% 올랐다.

지난 5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월별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12월에는 세계식물가격지수가 214.7점을 기록하였다.

지난해 세계식물생산량은 그 전보다 2% 감소되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의 경제전문가는 《2010년에 식물가격이 폭등한 리유는 하나나 큰 물과 전례없는 무더위 등 복잡한 자연기후조건과 관련된다. 이러한 자연기후조건은 수확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시기후천상으로 인한 극심한 자연재해로 진통을 겪고있다.

이미 보도편바와 같이 지난해에 세계적으로 볼 때 아이티와 칠레에서의 대지진, 칠레 남부 빙하밀에서 화산분출 등 여러 특대형자연재해들은 막대한 인적 및 물질손실을 가져다주었다.

식량가격이 오르는데 따라 식물가격도 상승하고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세계식량가격의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식물가격지수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해 10월에 세계식물가격지수가 197.1점을 기록해 전년보다 5% 올랐다.

지난 5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월별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12월에는 세계식물가격지수가 214.7점을 기록하였다.

지난해 세계식물생산량은 그 전보다 2% 감소되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의 경제전문가는 《2010년에 식물가격이 폭등한 리유는 하나나 큰 물과 전례없는 무더위 등 복잡한 자연기후조건과 관련된다. 이러한 자연기후조건은 수확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시기후천상으로 인한 극심한 자연재해로 진통을 겪고있다.

이미 보도편바와 같이 지난해에 세계적으로 볼 때 아이티와 칠레에서의 대지진, 칠레 남부 빙하밀에서 화산분출 등 여러 특대형자연재해들은 막대한 인적 및 물질손실을 가져다주었다.

식량가격이 오르는데 따라 식물가격도 상승하고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세계식량가격의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식물가격지수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해 10월에 세계식물가격지수가 197.1점을 기록해 전년보다 5% 올랐다.

지난 5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월별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12월에는 세계식물가격지수가 214.7점을 기록하였다.

지난해 세계식물생산량은 그 전보다 2% 감소되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의 경제전문가는 《2010년에 식물가격이 폭등한 리유는 하나나 큰 물과 전례없는 무더위 등 복잡한 자연기후조건과 관련된다. 이러한 자연기후조건은 수확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시기후천상으로 인한 극심한 자연재해로 진통을 겪고있다.

이미 보도편바와 같이 지난해에 세계적으로 볼 때 아이티와 칠레에서의 대지진, 칠레 남부 빙하밀에서 화산분출 등 여러 특대형자연재해들은 막대한 인적 및 물질손실을 가져다주었다.

식량가격이 오르는데 따라 식물가격도 상승하고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세계식량가격의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식물가격지수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해 10월에 세계식물가격지수가 197.1점을 기록해 전년보다 5% 올랐다.

지난 5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월별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12월에는 세계식물가격지수가 214.7점을 기록하였다.

지난해 세계식물생산량은 그 전보다 2% 감소되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의 경제전문가는 《2010년에 식물가격이 폭등한 리유는 하나나 큰 물과 전례없는 무더위 등 복잡한 자연기후조건과 관련된다. 이러한 자연기후조건은 수확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시기후천상으로 인한 극심한 자연재해로 진통을 겪고있다.

이미 보도편바와 같이 지난해에 세계적으로 볼 때 아이티와 칠레에서의 대지진, 칠레 남부 빙하밀에서 화산분출 등 여러 특대형자연재해들은 막대한 인적 및 물질손실을 가져다주었다.

식량가격이 오르는데 따라 식물가격도 상승하고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세계식량가격의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식물가격지수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해 10월에 세계식물가격지수가 197.1점을 기록해 전년보다 5% 올랐다.

지난 5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월별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12월에는 세계식물가격지수가 214.7점을 기록하였다.

지난해 세계식물생산량은 그 전보다 2% 감소되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의 경제전문가는 《2010년에 식물가격이 폭등한 리유는 하나나 큰 물과 전례없는 무더위 등 복잡한 자연기후조건과 관련된다. 이러한 자연기후조건은 수확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시기후천상으로 인한 극심한 자연재해로 진통을 겪고있다.

이미 보도편바와 같이 지난해에 세계적으로 볼 때 아이티와 칠레에서의 대지진, 칠레 남부 빙하밀에서 화산분출 등 여러 특대형자연재해들은 막대한 인적 및 물질손실을 가져다주었다.

식량가격이 오르는데 따라 식물가격도 상승하고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세계식량가격의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식물가격지수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해 10월에 세계식물가격지수가 197.1점을 기록해 전년보다 5% 올랐다.

지난 5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월별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12월에는 세계식물가격지수가 214.7점을 기록하였다.

지난해 세계식물생산량은 그 전보다 2% 감소되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의 경제전문가는 《2010년에 식물가격이 폭등한 리유는 하나나 큰 물과 전례없는 무더위 등 복잡한 자연기후조건과 관련된다. 이러한 자연기후조건은 수확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시기후천상으로 인한 극심한 자연재해로 진통을 겪고있다.

이미 보도편바와 같이 지난해에 세계적으로 볼 때 아이티와 칠레에서의 대지진, 칠레 남부 빙하밀에서 화산분출 등 여러 특대형자연재해들은 막대한 인적 및 물질손실을 가져다주었다.

식량가격이 오르는데 따라 식물가격도 상승하고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세계식량가격의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식물가격지수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해 10월에 세계식물가격지수가 197.1점을 기록해 전년보다 5% 올랐다.

지난 5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월별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12월에는 세계식물가격지수가 214.7점을 기록하였다.

지난해 세계식물생산량은 그 전보다 2% 감소되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의 경제전문가는 《2010년에 식물가격이 폭등한 리유는 하나나 큰 물과 전례없는 무더위 등 복잡한 자연기후조건과 관련된다. 이러한 자연기후조건은 수확과